[시놉시스] 청색을 앓는 해안선

1. 작품 기본 정보

제목: 청색을 앓는 해안선

저자: 소라

장르: 시대극 서양풍/동양풍 로맨스

로그라인: 망국의 공주와 적국의 귀족, 팔려 가듯 시작된 정략결혼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탐닉하며 시작되는 위태로운 쌍방 구원 로맨스.

2. 기획 의도

1930 년대라는 화려하고도 비극적인 도쿄를 배경으로, 국가라는 거대한 굴레에 묶여 자유를 박탈당한 두 남녀가 서로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수학적 질서로 고통을 견디는 여자와, 문학적 허무에 빠진 남자의 만남을 통해 탐욕적이면서도 처연한 로맨스를 보여주고자 한다.

3. 등장인물 설정

남주인공: 쿠제 타케오 (23 세)

도쿄제국대학 독문학과 재학생. 몰락해가는 화족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조선의 공주와 정략결혼을 받아들인다. 오만하고 유혹적이지만, 내면은 공허와 허무로 가득 찬 인물. 윤경을 만나며 생전 처음 '소유하고 싶은 슬픔'을 발견한다.

여주인공: 이윤경 (19 세)

조선의 공주. 나라가 망한 뒤 일본으로 압송되듯 건너와 타케오와 혼인한다. 조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방인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극심한 강박 증세를 겪는다. 이를 잊기 위해 수학 문제에 집착하며 철벽을 치지만, 자신과 닮은 타케오의 상처에 점차 마음을 연다.

4. 줄거리

[도입] 망국의 공주 윤경은 일본의 귀족 타케오와 정략결혼을 하게 된다. 서로를 증오하거나 무관심할 것이라 예상했던 첫날밤, 두 사람은 각자의 결핍과 상처를 직면하며 묘한 동질감을 느낀다.

[전개] 윤경은 일본 생활의 압박으로 인해 수학 문제에 매달리는 강박 증세를 보이고, 타케오는 그런 그녀를 관찰하며 점차 빠져든다. 사랑하지 않기로 맹세했으나, 타케오는 윤경에게 '자유'를 제안하며 그녀의 유일한 편이 되어준다.

[위기/절정] 대학을 꿈꾸는 윤경, 그러나 타케오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것을 제안한다. 작위와 신분 모든 것을 다 버리되, 자금만 들고 미국으로 떠나가로 한다.

[결말] 모든 것을 버리고 둘은 미국으로 떠난다.

#순정남 #뇌섹남 #존댓말남 #오만남 #유혹남 #상처남

#무심녀 #도도녀 #까칠녀 #상처녀 #동정녀 #외유내강 #철벽녀 #순진녀

#시대극 #정략결혼 #선결혼후연애 #운명적사랑 #왕족/귀족 #외국인/혼혈 #동거
#금단의관계 #서양풍 #동양풍

#애증 #첫사랑 #성장물 #더티토크 #쌍방구원물

쿠제 타케오 (23 세) – 도쿄제국대학 독문학과 3 학년 학생으로 영문학을 좋아하는 화족(귀족). 집안이 기울기 시작해 그걸 막고자 윤경과 정략혼을 하게 된다. 사랑 없는 결혼이라고 생각해 왔건만 그녀의 곁에서 비로소 숨통이 트인다.

이윤경 (19 세) – 조선의 공주. 하나의 제국을 명분으로 팔려가듯 치러진 정략혼의 주인공. 조국에서는 그녀를 환영하지 않는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가 유일한 그녀의 편이 되어준다. 그를 사랑하지 않기 위해 나날이 커지는 강박증세를 수학으로 완화시킨다. 그의 곁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고,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낀다.

*

나라가 망하고 팔려가듯 치러진 혼례 앞에서, 윤경은 결심했다.

그를 절대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그러나 결혼을 하면서부터 생긴 자유를 맛보는 윤경과 그녀를 너무나도 닮은 타케오.

어느새 둘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어 있었다.

망국의 공주 × 적국의 남자. 피할 수 없는 끌림 속에서 시작된 기묘한 동거와 위태로운 사랑.

"당신의 노래에는 리큐르 냄새가 나지만, 내 노래에는 피눈물 냄새가 섞여 있지요."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녀의 '슬픔'만은 소유하지 못한 남자, 쿠제 타케오. 무너진 성벽의 이끼를 헤아리며 적국 남자의 여자가 된, 이윤경.

1930 년의 도쿄, 가장 화려한 저택 깊은 곳에서 시작된 가장 비극적이고도 탐욕스러운 기록.

마음 놓고 사랑하기엔 보는 시선도 사연도 많고, 사랑하지 않기에는 서로에게 너무 깊이 끌리는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궁금할 때. 서로가 팔려온 처지인 아이러니한 상황. 1930 년대의 이국적인 배경 속에서 애증이 뒤섞인 운명적 사랑이 피어나는 이야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뇌하는 청춘들의 이야기.

〈미리보기〉

“살다보니 처음이라는 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더군요. 무언가 크게 바뀔 줄 알았는데,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강제로 당한 것까지는 아니었으니 안 괜찮을 게 뭐 있겠습니까.”

“제게 처음은 중요해요.”

“……”

“당신의 처음도 앞으로는 중요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팔을 들어올려 그의 머리에 붙은 작은 꽃잎을 떼어주며 말했다.

“...키스해도 됩니까?”

“……”

“첫 키스는 아니지만. 처음 하는 마음으로. 지금이 바로 그러고 싶은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처음이란 거.”

『청색을 앓는 해안선』〈줄거리〉

1930 년 도쿄. 제국의 확장 속에서 조선은 망국이 되고, 공주 이윤경은 내선일체의 명분 아래 일본 화족 쿠제 가문으로 팔려가듯 시집온다. 도쿄제국대학 독문학과에 재학 중인 쿠제 타케오는 기울어가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사랑 없는 정략혼을 받아들인 인물이다. 두 사람의 결혼은 정치적 상징이자, 서로에게는 타협에 불과하다.

윤경은 결심한다. 적국의 남자를 절대 사랑하지 않겠다고. 조국에서도, 시가에서도 완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의 처지 속에서 그녀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사랑이 싹틀 기미가 보일 때마다 강박은 심해지고, 수학적 계산과 반복을 통해 불안을 잠재운다. 그녀에게 사랑은 배신이며 굴복이다.

그러나 타케오는 그녀를 존중하며 선택권을 건넨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녀의 슬픔만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권력 대신 이해를 택한다. 두 사람은 적국의 남녀이기 이전에, '팔려온 처지'라는 공통된 아이러니 속에서 서로를 알아본다.

도쿄의 화려한 저택 깊은 곳에서 시작된 동거는 점차 애증과 연민,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끌림으로 변해간다. 그러나 이 사랑은 국가와 신분, 가족의 시선 아래에서 허락되지 않은 감정이다. 윤경은 끝내 선택해야 한다. 제국의 상징으로 남을 것인가, 한 인간으로 도망칠 것인가.

결국 두 사람은 화족 작위와 공주의 지위를 버리고 야반도주를 감행한다. 가진 재산 일부만을 들고 미국으로 향하는 그들의 선택은 낭만적 탈주이자, 국가와 권력으로부터의 이탈 선언이다. 『청색을 앓는 해안선』은 망국의 공주와 적국의 귀족이라는 운명적 설정을 통해, 사랑이 의무와 상징을 넘어 어떻게 개인의 자유 선택이 되는지를 묻는 시대극 로맨스다. 상실과 강박, 그리고 상호 구원의 과정을 통해 두 인물은 비로소 '처음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선택한다.